

※아산재단은 'SOS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재단 산하의 아산병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에게도 SOS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감사편지를 소개합니다.

## 막막한 순간 찾아온 도움의 손길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재단의 도움으로 허리 수술을 받은 김영화의 언니입니다. 이렇게나마 전하는 이 편지가 제 마음을 대신 전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가을 무렵부터 제 동생이 어딘가 불편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편하게 걷지 못하고 다리를 조금씩 끌고 다니는 듯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근육통을 호소하거나 어딘가 부딪혀서 아파하던 날이 종종 있었기에 저는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말이죠.

저는 자주 동생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는 핑계로 근 한 달을 넘겨서 동생을 다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호전되길 바랐었는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다리 한쪽을 질질 끌며 신발 하나도 제대로 못 신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어찌나 미안하고 제 마음이 찢어지던지. 당장이라도 큰 병원에 데려가 제대로 검사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 수술 날짜까지 정하고픈 마음이 간절했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녹록지 않은 탓에 만만치 않을 병원비와 수술 후에 들어갈 간병비를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재활이라도 들어간다면 분명 본격적으로 동생을 돌봐야 할 텐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니 선뜻 결정을 내리긴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참 못난 언니라고 자책하는 와중에 상담했던 한양대학교 병원의 사회복지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SOS 의료비 지원이 결정되어 아산재단에서 제 동생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나 기쁜던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더군요. 걱정으로 잠자리를 뒤척이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편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동생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재활을 위해서 한동안 입원했지만 증상과 경과는 하루가 다르게 좋아져서 며칠 전 퇴원 수속까지 잘 마쳤습니다. 정말 아산재단의 여러 담당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아산재단은 저와 제 동생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덕분에 근심과 걱정 모두 덜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편히 걸으며 웃음 짓는 동생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아산재단의 도움을 가슴 속에 꼭 새기겠습니다. 그 마음 꼭 붙들고 앞으로는 늘 많은 이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행복하세요. ☺ 글 김영화 경기도에서

